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 개관 발표

확장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시설 및 서던 티어의 관광 산업을 재조명하는 센터가 포함된 브룸 카운티의 81번 주간 고속도로(I-81) 휴게소의 개조 공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비상(Southern Tier Soaring)” 기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펜실베이니아주 경계선 북쪽에서 약 2 마일 떨어진 브룸 카운티의 커크우드 소재 81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81) 북쪽 방향의 최첨단 서던 티어 웰컴 센터 휴게소(Southern Tier Welcome Center)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개관한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Long Island Welcome Center)의 성공을 기반으로, 개조된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여행객들에게 뉴욕주와 지역 전체의 새로운 관광지 방문을 권하고 확장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시설에서 뉴욕의 세계적인 식품 및 음료 제품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개조 프로젝트는 경제 및 지역사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는 뉴욕의 훌륭한 보석입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뉴욕주의 활기에 찬 식품 음료 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관광 산업이 번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이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준의 여행지들을 보여 줍니다. 도처에서 모여든 방문객들께서 서던 티어에서 하실 고유한 일들과 둘러보실 명소들을 이 센터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개관식 리본 커팅 행사에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뉴욕주로 가는 관문으로서, 이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테네시주와 같이 멀리 남쪽에서 온 여행객들이 캐나다처럼 먼 북쪽의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에 거쳐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행객들이 여기에 들러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서던 티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 주의 관광 산업 및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995년에 마지막으로 보수 공사를 마친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현재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최대 60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좌석 공간, 전기 자동차 충전소, 어린이를 위한 테마 놀이 공간 “카누 리개터(canoe regatta)”, 오토바이 쉼터, 서던 티어 명예의 거리(Southern Tier Walk of Fame), 동영상 및 셀카 사진의 벽, 지역 공예품 미술관, 반려동물 편의 시설, 실물 크기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조각품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왓킨스 글렌 인터내셔널(Watkins Glen International)이 제공한 입구의 경주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과 전시품, 회전목마를 주제로 한 좌석 공간에 코닝 유리 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에서 대여한 공중에 설치한 유리 조각품 등이 서던 티어 명소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13,825 평방 피트의 면적으로 이전 시설보다 약 2,500 평방 피트가 더 큰 규모입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의 개선된 시설에는 확장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 제품을 폭넓게 홍보하여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공간은 단지 3 명에서 6 명 정도를 위한 좌석을 갖추고 있었지만 새로운 공간은 16 명을 위한 좌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최신식 마이크로 자판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말린 과일, 육포, 칩스, 견과류, 글루텐이 제거된 빵제품, 현지에서 로스팅한 전문 커피 음료 등과 같은 다양한 간식 및 간편식품 종류들뿐만 아니라 서던 티어에서 유명한 음식인 빵에 꼬치요리를 곁들인 스피디스, 파니니, 계절 수프, 샐러드 등과 같은 해당 지역의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샘플을 이제 현지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공간에서 서던 티어의 경치를 전망하게 될 것입니다.

5 개의 상이한 대화형 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키오스크 공간을 통해 여행객들은 서던 티어 및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맞춤 여행 일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키오스크에서는 여행객들이 한 명소에서 다른 명소에 이르는 경로를 계획하고 뉴욕주에 관련된 잡다한 지식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는 지역 관광 사이트 및 위치가 표시되어 전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조된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중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던 티어의

강력한 관광 산업 및 농업 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준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s)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의 새롭게 확장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시설은 이 지역의 '맛'을 탐험하고 얻으려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뉴욕주 식품과 음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독특한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방문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저희는 농부와 생산업체들을 홍보하고 서던 티어 전 지역의 농식품 관광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영 센터들을 통해 뉴욕의 지역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엠펙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관광 산업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해당 지역 전체의 지역 관광 자산을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배관, 난방, 환기, 냉방, 전기 시스템과 더불어 기존 휴게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6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2억 3,9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3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산업이며 매년 91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배경, 인종,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계곡(Valley of Opportunity)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신조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고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관문이 휴게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서던 티어의 문화, 서던 티어의 역사, 우리 지역사회를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로 만든 서던 티어의 주민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우리 지역의 흥미가 넘치는 자연 경관 및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는 현대적인 시설입니다. 저희는 도처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에게 서던 티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는 뉴욕을 방문하는 수십만 명의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들르는 곳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식품과 음료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그 너머의 흥미가 넘치는 여행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의 관광, 식품, 음료 산업 등을 성장시키려는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브룸 카운티의 **Jason Garna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1번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브룸 카운티를 통해 뉴욕주를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 들러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 브룸 카운티를 향해 매일 운전하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코넬 협동조합 브룸 카운티 지부(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Broome County)의 **Victoria Giarratano**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여행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뉴욕주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덕분에 중소기업 및 지역 농부들의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민간 사업체가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따라,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 [@NYSDOT](#)를 팔로우하세요.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